

감염병 예방관리의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융합연구: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병연*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Infection prevention management organization Convergence research on citizenship behavior: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Byeong-Yeon Jang*

Kyungwoon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의 관점에서 법·제도, 감시체계, 대응관리체계가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절차로 이론적 논의와 실무적 관점에서 감염병의 예방적 대응과 시민들의 협력적 행동의 인과적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분석결과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감시체계와 비상대응체계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해외여행과 교류가 과거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감염경로 비중이 다소 많은 비중을 보이기 때문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공공병원을 운영하면서 조직신뢰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확고한 이론적인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실효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감염병, 예방관리, 조직시민행동, 조직신뢰, 비상대응계획, 감시체계, 보건예방과 정책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laws, systems, surveillance systems, and response management system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from the viewpoint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anagement for public hospita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itoring system and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showed a stronger relationship in the prevention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will be carried out in the field based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at the importance of the organization trust is paid attention and the firm the theoretical foundation in the future.

• Key Words :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anagement,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Organizational Trust, Emergency Response Plan, Monitoring System, Health Prevention and Policy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장병연(jangbyy@daum.net)

Received September 1, 2017

Accepted October 20, 2017

Revised October 10, 2017

Published October 28, 2017

1. 서론

과거의 획일적인 명령통일의 조직방식은 현재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특히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 즉, 조직은 유기적이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협력 때문에 유지되며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구성원들이 어느 만큼이나 조직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쏟아 부어 주는가에 따라 그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에 생명력이 결정된다. 특히, 신종감염병 발생과 비상대응계획으로 감염병발생 시 비상대응계획 등 정부조직의 비상대응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시민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감염병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위험성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1]. 이는 급증해가는 국제교류로 인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위험이 높다. 신종감염병인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감염병은 과거에 발생한 감염병과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대처나 예방은 국가에 모든 것을 맡겼을 경우 곤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과 협력하는 대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3]. 이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신뢰에 대해서 Tan & Tan(2000)은 신뢰만큼 개인과 조직 간의 행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Behn(1995)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 관리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 키워드로 조직신뢰로 보았다. 조직신뢰의 축적은 그 구성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시민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관리의 경험적 축적은 바로 조직의 운명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조직구성원들의 상호협력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조직신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까지 감염병과 관련된 연구는 현황과 법률적 관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감염병 연구의 실증연구에 있어 그 대상들이 병원 구성원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변수의 선정에서도 결과변수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조직신뢰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사실적 규명이 미흡했다. 또한, 공공조직이나 사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감염병 예방관리 유형에 대한 관계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도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혀 없는 실정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의 관점에서 법·제도, 감시체계, 대응관리체계가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분석 결과 바탕으로 이론적 논의와 실무적 관점에서 감염병의 예방적 대응과 시민들의 협력적 행동의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이론적 논의

2.1 국내 감염병 발생현황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은 일부 지역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생물테러 위협과 같은 엄청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의 전이 정도와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발생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보고되지 않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 등의 종류는 발병되지 않고 있다. 홍역, 콜레라 등은 인구 백만 명당 한 명 미만인 퇴치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전통적인 수인성 혹은 식품매개 감염병인 장티푸스 등과 인수공통 감염병인 탄저, 브루셀라증, 공중매개감염병인 발진티푸스 등은 대부분 감염병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입국 중 발생 혹은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A형간염도 아직 퇴치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면서 국내에서 270명이 사망하여 약 1조 9천억 원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4,5]. 특히 기후변화, 세계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

있던 말라리아와 Dengue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과 함께 라임병, 치쿤구니야열 등 처음으로 보고되는 신종 감염병들이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2.2 감염병 예방관리

2.2.1 감염병 관련 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과 관련된 법으로 국민 건강에 유해를 차단하고 대유행을 방지, 예방 관리하는 목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이 법 이전에 「전염병예방법」은 2009년 12월 29일 전면개정되어 시행되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이는 사람들 간의 전파가 되지 않는 질환들을 포괄한 감염병의 용어로 정리하였다.

2.2.2 감염병 감시체계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가 있다. 또한 일정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서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전수감시 대상인 감염병의 경우는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한 경우에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6]. 그리고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 환자, 의사, 병원체 보유자 등을 진단할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7].

2.2.3 비상대응체계

감염병이 발생함으로써 인하여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처에서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감염병에 대한 총괄지원과 협조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위기관리체계와 기관별 활동 방향 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되어 국립검역소에 지시를 통해 방역기획과 총괄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8].

또한, 전국의 공항, 항만, 검역소를 통해 국내로 유입

하는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국내 감염병에 대한 확산을 대비하고 주요 의료기관과 민간자문기관 등을 통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국 질병관리본부의 16개 시·도, 253개 보건소, 13개 검역소 등과 관련 기관에서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이들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가축 방역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게 하고, 인체감염 방재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와 7개 전문분과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게 된다.

2.3 조직신뢰

조직신뢰의 연구는 그 분석대상이 개인과 집단, 조직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조직신뢰연구는 분석단위를 개인, 조직, 집단의 일차원적인 개념화에 의한 연구라고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는 조직구성원들의 신뢰대상이 조직 혹은 업무부서는 물론 최고경영진, 상사, 부하, 동료 등과 다른 부서 및 팀 등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9,10,11,12].

이제까지 조직신뢰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다계층으로 수용하면서, 조직에 대한 신뢰, 상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동료의 신뢰로 일반적으로 구분됐다.

조직 내 구성원들의 관계에서 조직성과와는 직접 연관성이 있으며, 상사-부하의 관계와 조직 구성원의 관계 등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조직에 대한 신뢰와 상사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대상을 다층적으로 개념화하고 기업보다 위계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최고경영진의 활동과 결정에서 조직의 신뢰는 많은 영향을 받고, 법·제도와 업무부서의 책임자의 감시체제를 수직적 신뢰로 보았다. 그리고 동료들 간의 신뢰를 수평적인 신뢰로 구분하기도 하였다[13].

2.4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이타심, 일반적 순응을 제시하거나, 이타심, 순응, 참여를 제시하기도 한다. 조직시민행동의 주요 구성요소로 이타심, 순응, 참여를 강조한 바 있으며, 규칙복종, 타인의 원조, 우수성 추구, 충성과 참여 등을 조직시민행동으로 보았다[14].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을 이타심, 양심성, 예의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으로 보았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타심의 경우 조직에서 업무 등 업무 외적인 문제를 다른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행위이며, 걸근동료와 업무량이 많은 동료 및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동료들을 돕는 행위를 말하였다[15].

양심성은 조직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칙과 휴식시간, 기본사항들을 준수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의 역할 외에 부가적인 요구들을 헌신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특정의 개인들에게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근무규칙·휴식을 준수하며, 고객을 위하여 봉사하여 조직유지에 도움을 주려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의성은 자신의 의사결정 혹은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동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행동이다. 자발성은 불가피한 개인의 불편을 불평하지도 않고, 오로지 참고 인내하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의지를 말한다.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행동을 말한다. 시민정신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책임지고, 조직활동에 참여하여 몰입하고 고민하는 행동을 말한다.

3. 조사설계 및 방법

3.1 자료수집 및 자료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경북에 속한 공공병원(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에 속한 공무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4월 12일부터 동년 5월 30일까지이며 조직구성원들인 공무원들과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279부이며, 사용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외한 26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가 74.2%, 여자가 25.8%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학력의 경우 전체 65% 이상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중 전문대 졸업 22.4%를 포함될 경우 전체의 87% 이상이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급의 경우 7급이 32.4%로 가장 많은 편이다. 그 외 6급이 23.3% 그리고 8급이 20.8% 그리고 9급 23.8%로 그 분포가 비슷한 분포를 차지하였다. 직렬은 행정직이 48.7%와 기술직이 34.3%이다. 그 외 기능직 8%와 전산 및 계약직과 기타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20-30대가 5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29.8%를 차지하고 있다. 근무기간의 경우 5년 이하가 44.5%로 가장 많고, 15년 이상도 30.7%를 차지하였다.

3.2 변수측정

감염병 관리 '법·제도'는 '감시체계' '비상대응체계'를 포함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문항 중 '이타심', '양심성', '예의성', '자발성', '시민정신' 등의 행동에 관련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6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조직신뢰는 '조직신뢰', '상사신뢰', '개인신뢰'로 구분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설문지에서 제시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변수의 구성개념과 일치성을 확인한다. 이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설문문의 내용이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한다.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통해 변수들의 요인축적을 실시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의 선정을 위해 각 변수들의 측정개념 등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준거로 0.5 이상 요인적재량이 확인된 것만을 채택하였다.

4. 분석의 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Table 1>에 감염병 안전관리의 법·제도, 감시체계 및 비상대응체계의 정도와 조직시민행동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5점 척도로 측정된 평균값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감염병 예방관리의 변수들인 법·제도, 감시체계, 비상대응체계의 평균은 3.40이고, 법·제도는 3.37로 감시체계(3.78)와 비상대응체계(3.68), 그리고 조직신뢰(3.17)와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다. 먼저 법·제도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감시체계와의 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감시체계와 비상대응체계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해외여행과 교류가 과거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감염경로 비중이 다소 많은 비중을 보이기 때문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전반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적 측면에서 정책적인 방향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 등과 비상대응체계가 비슷한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liability for variables

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cronbach α	1	2	3	4	5
1. Laws and Institutions	3.370	.585	.814	1.00				
2. Surveillance system	3.78	.814	.909	.513**	1.00			
3. Emergency response system	3.68	.624	.808	.426**	.547**	1.00		
4. Organizational Trust	3.17	.691	.868	.357**	.355**	.363**	1.00	
5.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3.71	.681	.847	.453**	.641**	.653**	.454**	1.00

** Correlation coefficient is 0.01 level (both sides)
 * Correlation coefficient is 0.05 level

4.2 가설검증

4.2.1 감염병 예방관리와 조직신뢰 및 조직시민행동 관계

조직시민행동은 감염병 예방관리인 법·제도, 감시체계, 비상대응체계 등이 조직시민행동에 종속변수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2>는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법·제도와 감시체계는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p<.01) 미치고 있으나 비상대응체계는 무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조직, 개인, 집단의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Regression of Infection Prevention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Trus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	Standard error	beta	T value	Probability of significance
(a constant)	.576	.347		1.659	.073
Law and Institution	.198	.081	.174	2.444	.008
Surveillance system	.168	.062	.213	2.709	.007
Emergency response system	.141	.075	.129	1.880	.069
Organization trust	.027	.008	.304	3.375	.003
R2	.265				
Ad R2	.254				

4.2.2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 ²	ΔR ²
Law and Institution		.256	.132
Surveillance system		.268	.061
Emergency response system		.204	.037
Law and system X Organization trust		.248	.009
Surveillance system		.227	.121
Emergency response system		.253	.027
Surveillance System X Organizational Trust		.283**	.029
Emergency response system		.241	.138
Emergency response system X Organizational Trust		.269**	.033

p<.05* p<.001**

조직신뢰의 정도에 따라 법·제도 및 감시체제와 조직시민행동 관계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법·제도와 감시체제가 조직시민행동에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요컨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관리의 독립변수로 법·제도를 포함시킨 결과 그 설명력의 정도가 약 25.6%(R²=.132)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법·제도와 조직신뢰 측정치의 곱으로 이루어진 법·제도 X 조직신뢰 상호작용 항목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그 설명력은 단지 .009증가한 R²=.248로서 그 변화는 매우 미약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제도 및 감시체제와 조직시민행동관계에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시체제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감시체제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감시체제와 조직신뢰의 상호작용 항목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결과 R²값이 .029 증가하여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와 감시체제의 비상대응체제의 관계에 조직신뢰의 조절효과와 경우 법·제도와 조직신뢰의 상호작용 항목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결과 R²값이 .033 증가하여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설검증 결과 법·제도와 감시체제는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제도 및 감시체제와 비상대응체제와는 정(+)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법·제도, 감시체제, 비상대응체제가 그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들 간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법·제도와 감시체제는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비상대응체제는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신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과 유대감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신뢰는 법·제도와 감시체제가 조직시민행동에 조절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공병원은 감염병 예방 및 감시와 대응체제에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신뢰가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신뢰는 자발적으로 동료를 도우며[16], 공공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조직시민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 활발한 조직신뢰를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활동의 활성화를 시키는 데 기여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공공병원의 공무원 및 사용자들은 조직신뢰의 관계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하도록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즉, 감염병 예방관리는 조직신뢰에 대한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비상대응체제는 지속시키고 간접적인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직신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신뢰를 구축하면서 상사·동료들 간의 신뢰의 정도가 높으면 조직시민행동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법·제도와 감시체제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운영방침에 대한 조직신뢰가 높을 경우 하향식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유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애착과 유대감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의 존재 목적과 지향하는 방향이 명확할 때 조직과 정체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제도의 정도가 강해지고 법·제도의 정도가 강해지고 조직시민행동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병원을 운영하면서 조직신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확고한 이론적인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실효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E. C. Kim,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and infection control.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4thed., Hanmi Medical Publishing, 2011.
- [2] J. H. Kim,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Legislation Modification to Develop National Abilities to Cope with Epidemics. Research Report 11-07. pp. 4, 2011.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port of basic control and prevention plan for infectious disease(2013-2017)", http://www.mohw.go.kr/front_new/al/sa1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89245&page=1.
- [4] J. S. Choi, J. S. Kim,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Behavior against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 among Nursing Students in South Korea", Nurse Education Today, Vol. 40, pp. 168 - 172, 2016.
- [5] J. S. Kim, J. S. Choi,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related Knowledge, Preventive Behaviours and Risk Perception among Nursing Students.
- [6] J. E. Moon, M. O. Song, "A Convergence Study

- about the Performance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of Hospital Nurses-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5, pp. 117-125, 2017.
- [7] O. S. Kim, J. H. Hwan, K. H. Lee, “The Convergence Study on Anxiety, Knowledge, Infection Possibility, Preventive Possibility and Preventive Behavior Level of ME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59-69, 2016.
- [8] M. J. Kim, “The Convergence Study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Preventive Behaviors against M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4, pp. 149-157, 2017.
- [9] Gambetta, D., Can We Trust? In Gambetta(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 1998.
- [10] Cook, J. D. and Wall, T. D., “New Work Attitude Measures of Trus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ersonal Need Non-Fulfill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53, pp. 39-52, 1980.
- [11]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and Camerer, C.,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pp. 393-404, 1998.
- [12] Greenberg, J., “Employment as a Reaction to Underpayment Inequity: The Hidden Costs of Pay Cu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5, No. 5, pp. 561-568, 1993.
- [13] W. S. Jung, “A Study of the Factors that Affect Tax Accounting Firm Employees’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Supervis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213-225, 2017.
- [14] D.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Quality of Nurses’ Care Service with Nurses’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as a Moderato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2, pp. 206-236, 2011.
- [15] Organ, D. W.,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good soldier syndrome. Lexington”, MA, Lexington Book, 1988.
- [16] J. M. Kang, J. O. Kwon, “A Convergence Study about Influences of Trust in Supervisor, Customer badness behavior, Turnover Intention behavior on Job Embeddedness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7, pp. 113-122, 2017.

저자소개

장 병 연(Byeong-Yeon Jang) [정회원]



- 1988년 2월 : 영남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00년 2월 : 영남대학교 법학과 (법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감염병, 보건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구제법